

세계 아티스트들과 교류... ‘남도 예술’ 알린다

“기쁘고 설레지만 여행자의 시선으로 흔적을 남기고 세계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며 광주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어반 스케치가 표현기법에 구애받지않는 만큼 이를 통해 세계 작가들과 교류에 나설 것입니다.”

이는 암이 발병해 건강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음식의 소중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머물며 매일 어반 스케치를 그려 한글 분량을 작업. 예술열정을 꺾지 않았던 서동환씨(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협회 회장·전 광주아트가이드 대표)가 밝힌 소감이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오랜 투병 뒤 다시 예술가로서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자 하는 시점에 좋은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진다. 그가 10일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에서 열리는 ‘제25회 국제 카르네 드 보야주 페스티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한국 대표 작가로 초청받아 9일 출국했다.

이번 초청에는 이 지역에서 서 작가 외에 나주 백은영 작가(나주미술협회 회화분과위원장·나주창작스튜디오 대표)가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여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초청은 국제 미쉐린 도시 네트워크(INMC) 및 페스티벌 주최기관 일 포 알레 부아르(II Faut Aller Voir)의 공식 초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카르네 드 보야주’는 전세계 아티스트들이 여행을 통해 만난 풍경과 사람, 문화를 스케치와 글로 기록하는 국제 예술축제로, 프랑스 중부 도시 클레르몽페랑에서 매년 열리며, 올해는 ‘물·음식·에너지’를 타이틀로 30개국에서 130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서 작가는 광주의 도시 문화와 민주정신을, 백은영 작가는 나주의 역사와 한국화의 미학을 주제로 창작 레지던시 활동

佛 ‘25회 국제 카르네 드 보야주 페스티벌’ 초청
광주 서동환·나주 백은영 작가, 레지던시 입주 등
‘물·음식·에너지’ 주제 30개국 130명 작가 참가



이번 프랑스 여정을 설명하는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백은영 작가·양수경 한국불어교사협회 이사·서동환 작가.

과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프랑스 현지 작가들과 함께 어반스케치 워크숍, 공개 드로잉 세션, 인터뷰 및 미디어아트 전시 등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 무대에 소개한다.

서동환 작가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어반스케치 작가로, ‘도시와 일상 속 문화’를 그리는 지역 기반 예술운동을 주도해 왔다. 현지에서 회경루나 예술의거리, 5·18사적지 등을 선보이고 싶다는 그는 “이번 초청은 광주가 가진 민주·예술의 도시 정체성을 세계 예술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어반스케치를 통해 광주와 나주의 풍경, 사람, 이야기를 프랑스 현지에 생생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 남종화를 전수 중인 가운데 어반드로잉 색채보다는 먹으로 하는 작업을 보여주겠다는 백은영 작가는 “한국화의 섬세한 선과 색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하고, 나주가 지닌 역사적 서사를 세계의 예술 언어로 확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 작가는 경기 의왕과 과천에 25년 동안 머물며 남편의 직장을 따라 10년 전에 나주로 내려와 현재 재가치 머물며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2026년에 맞춰 나주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불수교 140주년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고 양국 간 문화·경제·교육·관광 등 다방면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단에는 양수경 한국불어교사협회 이사(전 대광여고 교사), 엠마뉴엘 후(Emmanuel Huh)



서동환 작 ‘광천시민아파트’

파리 시테대학교 교수, 오영교 한불통신 대표, 박선영 프랑스 한글학교협회회장, 남영호 몽펠리에 한국문화축제 총감독 등 한불 교류의 중추적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나주시는 1851년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Narval)의 비급도 표류 사건을 계기로, 병인양요(1866)보다 15년, 한불수교(1886)보다 35년 앞서 있었던 한국과 프랑스의 첫 외교적 만남을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광주의 서동환, 나주의 백은영, 그리고 안동의 임현오 작가는 프랑스 현지에서 일주일 간의 레지던시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들은 도시와 사람을 스케치하는 ‘어반스케치’ 작업,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접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공동 창작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예술적 대화를 이어갈 복안이다. 페스티벌 자체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클레르몽페랑에서 펼쳐진다. 클레르몽페랑 화산지대로 미세먼지타이 어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으로 나주시와는 지난 6월 윤병태 나주시장이 양수경 한국불어교사협회 이사 등과 함께 현지를 방문, MOU를 맺고 공식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클레르몽페랑 부시장 일행이 지난 3일 나주를 찾아 나주시는 물론이고 광주 동구청 방문과 문화시절 등을 둘러보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1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활동을 마친 후 서 작가는 18일, 백 작가는 20일 귀국할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인문학으로 만나는 시대 아우른 예술세계와 삶

‘시민인문학 대담’ 내일부터 총장22

총장22 문화사업단(단장 윤진학)은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총장22 1층 카페(광주 동구 총장로22번길 2)에서 ‘2025 총장22 시민 인문학 대담’을 진행한다. ‘예술과 생활이 만나는 인문 스토리’라는 주제로 이뤄질 이번 인문학 대담은 우리의 전통과 예술이 어떻게 일상 속 깊은 이야기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자리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5인의 예술인과 전문가가 5주간 강연자로 나서 시대를 아우르는 예술과 삶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12일에는 이학수 웅기장(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웅기장)이 전통 웅기에 깃든 정신에 대해 들려준다.

이어 19일에는 이화영 민화 작가가 민화의 르네

상스 및 현대적 해석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우제길 작가가 한국 추상 미술현장의 흐름(26일), 최성은 국사편찬사료조사위원이 종가 문화에 담긴 기록과 삶의 지혜(12월 3일), 서해숙 남도화연구소 대표가 종가음식과 제례에 관해 각각 강연한다.

윤진학 단장은 “이번 강연은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친 일상에 파듯한 울림을 더해줄 이번 인문학 대담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과 현대 예술이 삶에 녹아드는 방식을 발견하고,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매 강연은 선착순 30명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11일까지 전화 또는 메일(chungjang_22@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413-1122.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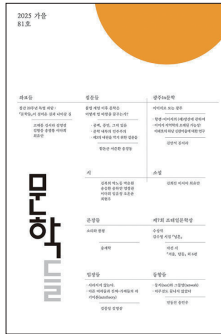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들’ 창간 20주년 기념식

14일 오후 4시 30분 동구 미로센터 미로극장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들’(발행인 송광용)이 창간 20주년 기념식을 14일 오후 4시 30분 동구 미로센터 미로극장에서 갖는다. 지난 2005년 가을호로 창간된 ‘문학들’은 당시 침체된 지역 문학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간됐다.

〈본보 2025년 6월 3일자 11면 참조〉고재중 나중영 임동학 시인, 이화경 채희운 소설가, 김형중 평론가 등 역량있는 작가들이 편집진에 참여해 기틀을 닦았고, 이후 박구용(철학), 윤수중(사회학), 임경규(영문학), 이영진(인류학) 등 인문 사회 분야로도 폭을 넓혀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문학, ‘광주’라는 지역성 문제를 새롭게 탐구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와 소설, 동화, 평론, 에세이 등을 아우르면서 참여한 문학 담론과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단의 주목받는 문예지로 성장해온 ‘문학들’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김서라(미술비평·지역연구), 김영삼(문학비평), 이다희(시인), 정용준(소설가·서울예대), 최유안(소설가·전남대 독문학)을 새로운 편집위원으로 보강했다.

이들이 주축이 돼 펴낸 혁신호(통권 81호)는 지난 20년을 정리해보고 ‘문학들’의 새로운 길을 찾는 좌담(‘좌표들’), ‘불편 계엄 이후 문학은 어떻게 법 바깥을 꿈꾸는가?’라는 질문에 답한 함돈근, 서준환, 송경동의 글(‘질문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한 줄의 문장에 대한 송재학 시인의 에세이(‘문장들’), ‘항쟁-이미지’의 (재)생산 그리고 ‘이미지 지역학’의 가능성 등을 살피는 글을 실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오세혁

원 쉰시

와인 차론 차마이

연출가 3인 3색 무대

亞문화전당, 13~15일

예술극장 극장1·2서

‘Remapping ASIA’

전쟁·고립 등 다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오는 13~15일 ACC 예술극장에서 개관 10주년 사업 ‘아시아 연출 3부작-Remapping ASIA’를 무대에 올린다.

‘Remapping ASIA’는 한국과 대만, 태국의 연출가가 참여해 2년간 주제 발굴, 교류, 각국의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공동 워크숍 과정을 거쳐 각기 고유한 예술관과 아시아적 시각이 담긴 실험적 작품을 선보이는 사업이다. 대만의 대표적 국립극장인 국가양정원과 공동 제작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쟁의 기억, 고립과 치유, 그리고 인간의 연대 등 동시대 아시아 현상들을 각기 다른 예술적 시선으로 바라본 3편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오는 13일과 15일 예술극장 극장1에서는 대만의 연출가 원 쉰시의 신작 ‘나를 잊지 말아오’를 선보인다. 아시아 현대사의 깊은 상흔인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극장 공간으로 들어와 기억과 연대의 실험을 시도하는 작품으로 대만, 필리핀, 한국 출신의 예술가가 모여 ‘전쟁’에 대한 각기 다른 역사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전쟁 기념비 속에 기록되지 못한 연결점을 찾고자 한다.

연출은 공연을 통해 단순히 전쟁을 재현하거나 기록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 기억의 가능

성과 한계를 탐구하면서 ‘우리’라는 주체가 누구인지,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 그 기억은 어떻게 현재의 우리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이어 오는 14~15일 예술극장 극장1에서는 ‘한날, 그리고 허공을 떠도는 연약한 것들: 그 다음, 점프! 점프!! 점프!!!’ 공연이 펼쳐진다. 태국의 와이인 차론 차마이는 주목받는 젊은 극작가 겸 연출가로 동시대 사회의 현상과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 섬세하고 실험적 연출력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는 창작자다.

이번 작품에서는 현대 도시 자본주의 속에서 고립과 내면의 외로움을 겪는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본다. 성취 중심의 반복 되는 삶 속에서 점점 좁아지는 개인의 자유와 관계성을 성찰하며, 내면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회복하고 타인, 자연, 영적 믿음과의 새로운 연결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14~15일 예술극장 극장2에서는 한국 연출가 오세혁의 ‘안타-사면 사면 클림’을 즐길 수 있다. 오 연출가는 연극, 뮤지컬, 마당극, 영화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동시대의 정치·사회적 현상을 대중적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작품은 ‘계엄령’과 ‘사면 니즘’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시아 현대사를 교차

시키며, 억압의 역사 속에서도 생명과 신명이 이어지는 공동체의 에너지를 무대 위에 되살린다. 사면의 주문인 EDM의 비트로 재탄생하는 이번 공연은 국판이자 클럽, 광장이자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며, 잃어버린 ‘놀 권리’를 되찾는 집단적 의식을 그린다. 관객은 무대 위에서 신이자 사면으로 참여해, 아시아의 수많은 영혼을 함께 기억하고 위로한다. ‘잘 놀자!’라는 주문 속에서 관객들과 놀이를 통한 저항과 치유, 그리고 연대의 미래를 노래한다.

한편, 공연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연출가 3인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됐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공동 제작 프로젝트는 아시아 각국의 예술가들이 서로의 역사와 현실을 교차시키며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매우 뜻깊은 시도”라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가 공유하는 기억과 감정,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예술적 에너지를 관객들이 생생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개 공연 패키지 관람 시 50% 할인이 적용된다. 입장료는 전석 2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